

광주도 '대형 싱크홀' 안전지대 아니다

관로 노후화·지하철 공사 겹쳐...6년간 지반침하 122건 발생 하수관로 42% 1910km '20년 이상' ...123km 정비·보수 시급

광주 도심에서도 대형 싱크홀 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 지역 지하 상·하수도 관로의 42%가 20년 이상 노후됐고 지하철 공사로 인한 관로 손상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다. 서울 도심 도로에서 대형 싱크홀(땅 꺼짐)이 발생해 차량이 추락해 운전자 등이 큰 부상을 당한 사고원인도 상·하수도 관로 노후로 지목되고 있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지하에 매설된 상·하수관로는 총 4472km이며, 이중 42%인 1910km가 설치된지 20년 이상된 노후 하수관이다.

광주시가 환경부 지침에 따라 2015년부터 정밀 조사한 결과, 노후 하수관로 중 123km가 파손이 심

해 정비·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194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수공사에 나서 2027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비가 완료된 곳은 2021년에 실시된 36km구간뿐이다. 오는 2026년까지 추가로 70km를 정비할 계획이나 예산 확보가 어려워 실현이 불투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매년 노후관로로 인한 땅꺼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위험신호는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6년(2019~2024년 7월)간 광주에서 122건에 달하는 지반 침하 사고가 발생했다. 2019년 20건, 2020년 55건, 2021년 12건, 2022년 6건, 2023

년 26건의 지반 침하 사고가 발생했으며, 올해는 7월까지 3건(서구 2건·북구 1건)이 발생했다.

지반침하가 발생한 원인으로는 70%에 달하는 85건이 하수관 손상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로 다짐 불량이나 23건으로 뒤를 이었고, 기타 매설물 손상 3건, 굴착공사 부실 1건, 원인 미상 10건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3일 광주시 서구 쌍촌동 동남4차아파트 인근 천변로에서 지름 30cm·깊이 1m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했으며, 지난 6월 26일에도 광주시 서구 벽진동의 한 도로에 길이 5m·폭 3m·깊이 1m로 비교적 큰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2건 모두 지하에 매설된 하수관 일부가 파손되면서 흘러나온 물에 흠이 쓸려나가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 13일에는 광주시 북구 양산동 도로에서 지름 1.3m·깊이 3m의 싱크홀이 발생해 주행 중인 자동차 2대가 파손됐다.

전문가들은 하수관의 노후화가 심각해지다 지하철 공사까지 겹쳐 지반 침하 위험이 한층 높아졌다고 경고한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장기화되면서 지반이 약해지고 하수관로가 파손되는 경우가 잦아졌기 때문이다.

송정영 광주대 건축학부 교수는 "하수관을 비롯해 광주·전남 사회기반시설 대부분이 1960~70년대 만들어진 만큼 급격히 노후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수습하는 땀질식 처방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공학적인 관점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등을 미리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예산의 제약 때문에 노후 관로 보수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노후하수관이 해마다 늘어나는 상황에서 설계와 공사 절차가 오래 걸리고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비가 빠르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20분께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의 한 도로에서 가로 6m·세로 4m·깊이 2.5m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주행 중이던 흰색 SUV 1대가 이 싱크홀에 빠지면서 80대 운전자와 70대 동승자가 중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서울시는 노후 상수도관과 빗물펌프장 관로 공사 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화제의 판결

면책조건부 도로점용 허가 내 줘어도 지자체 책임져야

광주지법 "순천시-순천경찰 내부적 허가조건일 뿐"

경찰이 지자체로부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서 운전자보다 다쳤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

법원은 도로 점용허가를 내 준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정숙)는 보험회사가 순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파기하고 순천시의 50%책임 인정했다고 1일 밝혔다. 1심은 순천시의 70% 책임을 인용했다.

A씨는 2022년 4월 1일 오전 7시께 청사 신축 중인 순천경찰서 앞 도로에 임시설치된 '협프형 횡단보도'를 차로 주행하다 충격으로 흉추골절,

요추염좌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이 횡단보도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도면과 같은 높이로 시공하는 것으로, 사고현장의 협프형 횡단보도의 높이는 15cm였다.

A씨에게 치료비 등 5900여만원을 지급한 보험사는 "운전자가 협프형 횡단보도를 미리 보고 감속할 수 있는 안내표지판 설치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순천시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순천시는 "횡단보도가 신축공사에 포함돼 시공 중인 도로로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민원 등에 대한 배상은 피하가자인 순천경찰서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순천경찰은 공사 과정

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도로 점용허가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도로는 이미 개통돼 일반인이 통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순천시는 해당 도로에 사실상 관리권을 행사하고 있었다"면서 "안내표지판이 없었다는 것은 도로의 관리자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면책 조건은 순천시와 순천경찰의 내부적인 허가조건일 뿐, 이를 근거로 제3자에게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면서 "다만 운전자는 도로의 제한 속도가 시속 30km인 상태에서 50~52km로 초과 주행하는 등 감속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순천시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한다"고 원심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성묘객 맞이 분주 망월묘지공원의 한 직원이 1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망월묘지공원에서 추석 성묘객을 맞이하기 위해 벌초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영암 성인 게임장서 60대 중국인 남성 분신 사망

손님 4명 중·경상

영암군 삼호읍의 한 성인 게임장에서 60대 중국인 남성이 몸에 기름을 붓고 분신했다.

이 사고로 게임장에 있던 손님 4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1일 영암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영암군 삼호읍의 한 성인 게임장에서 불이나 60대 중국인 남성 A씨가 숨지고 4명이 다쳤다.

A씨가 자신의 몸과 게임장 바닥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게임장에는 총 4명의 손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불로 게임장 내에 있던 손님 2명은 중

화상을 입고 타지역의 화상전문병원으로 이송됐다. 연기를 흡입한 2명은 인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게임장 주변 CCTV를 통해 A씨가 인화물질을 들고 게임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A씨가 들어가자마자 문을 잠가 뒤따라오던 다른 손님은 내부로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게임장 정문을 잠그고 몸에 불을 붙인 탓에 신속한 대피가 이뤄지지 못해 중상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평소 해당 게임장을 자주 이용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김디안 기자 kdi@kwangju.co.kr

해남 50대 불법 체류 남성 한 낮 밭에서 일하다 숨져

1일 해남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께 해남군 북일면 한 마을의 밭에서 태국 국적 A(54)씨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대원 도착당시 A씨는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씨를 고용한 밭 주인은 "A씨가 폭염에 밭일을 하던 중 쓰러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밭 주인이 중개인을 통해 고용한 불법체류자로, 이날 처음 일을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차 검시 결과 사망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온열질환에 따른 사망으로 추정되고 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자 이호동 | 삽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격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아느냐/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